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5. 10. 1.(수) 18:00

## “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위한 역량 결집 다짐” ..세계한인회장대회 폐막

- 67개국 370여명 참가자, E.N.D(교류, 관계정상화, 비핵화) 중심 한반도 평화실현 지지
-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“한인회 목소리 정책에 반영...실질적 지원 강화할 것”
- 내년 대회장에 윤희 아시아한인회총연회장이석로 캐나다한인회총연회장 추인

- ‘2025 세계한인회장대회’가 1일 오후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포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다짐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.
  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‘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를 잇다, 미래를 밝히다’라는 슬로건 아래 사흘동안 진행됐다.
  - 행사에는 전 세계 67개국의 한인회장과 대륙별 총연합회 임원 등 370여 명이 참여했다.
- 김경협 청장은 폐회사에서 “이번 대회를 통해 글로벌 재외동포 사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금 확인했다”면서 “참가자들의 목소리가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참가자들은 이날 폐회식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평화와 안정 등을 담은 10개항의 결의문\*을 채택했다.
  - \* △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재외동포사회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,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하고 △‘APEC 2025 KOREA’의 성공 개최와 △E.N.D(교류, 관계정상화, 비핵화)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항구적 평화 실현을 지지하며 △전 세계에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민간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△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모국 유대 강화를 비롯해 △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극복에도 재외동포 청년 인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△재외선거 제도 개선, △복수국적 연령하향을 위한 지지 표명, △태극기의 날 제정 제안, △한인회가 세계한인회장대회 주최 제안 등을 결의했다.
- 또 지역별 현안토론과 재외동포청 바로 알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.

- 대회 이틀째인 9월 30일에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 방안, 지역 한인회 분쟁 해결 등 전 세계 한인회의 연대를 위해 세계한인총연합회가 주도한 ‘공통 의제 토론’ 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.
- 또한 정부와의 대화 △한인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 △지자체-동포사회 협업사례 발표 등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세션이 이어졌다.
- ‘정부와의 대화’ 세션에서는 법무부, 국세청, 중앙선관위, 국민연금공단, 국립민속박물관 등 5개 기관이 국적법, 세법, 재외선거, 사회보장협정, 유물 수집제도 등 동포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.
- 올해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인 ‘지자체-동포사회 협업사례 발표’ 는 인천 광역시, 울산광역시, 전북특별자치도가 각자의 동포정책과 한인회 협업 사례를 공유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.
  - 특히,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직접 발표에 나서며,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동포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.
-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들은 대회 기간에 회의를 열어 내년 공동 대회장에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윤희 회장과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이석로 회장을 추인했다.
- 한편, 재외동포청은 10월 2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‘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’ 을 개최할 예정이다.

붙임 :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 결의문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오현영	032-585-3195
		담당자	사무관	유가은	032-585-3197

